

**전일동향**

전일 대비 4.40원 상승한 1,530.00원에 마감

6일 환율은 NDF 증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2.00원 상승한 1,527.60원에 개장했다. 오전에는 저가매수에 따른 결제 수요 유입으로 상승했으나, 외환당국의 미세조정 경계감이 추가 상승폭을 제한하며 전일 대비 4.40원 상승한 1,530.00원에 마감했다. 주간장중 변동 폭은 10.80원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943.13원이다.

전일환율변동	구분	시가	고가	저가	종가(06:00)	평균환율 (매매기준율)
	달러	1527.60	1537.50	1526.70	1530.00	1531.80
엔화	945.19	973.25	942.95	943.13	-	
유로화	1744.67	1795.45	1744.52	1749.05	-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1.08	-3.85	-8.1
결제환율(수입)		-0.71	-2.66	-5.85	-12.05

\*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  
\*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https://www.ksure.or.kr/rh-fx/index.do>) 확인

**금일 전망**

외국인 주식 매도세에...1,530원대 중심 등락 전망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1.30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1,530.00) 대비 1.40원 하락한 1,527.60원 에서 최종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수입업체 결제 등 달러 실수요 매수세로 제한적 상승할 전망이다.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영업 이익을 발표했으나, 외국인의 국내 증시 순매도 기조가 이어질 경우 환율 상방 압력이 우세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일본 외환당국의 개입 경계감보다 다카이치 내각의 확장 재정정책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면서 엔화가 약세를 보인 점도 원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외환당국의 경계감 속에 상단이 제한된 가운데 수출업체 고점매도 물량이 유입될 경우 환율 상방 압력은 상당 부분 상쇄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6월 ISM 서비스업지수가 전월대비 0.5 포인트 하락한 54.0을 기록하면서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가 약화되었다는 점 또한 환율 상단을 지지할 전망이다.

<b>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b>	<b>1524.75 ~ 1536.00 원</b>
----------------------	----------------------------

<b>체크포인트</b>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13143.68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1.40원 ↓
	■ 美 다우지수 : 53055.91, +155.84p(+0.29%)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151.36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2677 억원

※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